

# ‘제4 인터넷은행’ 변수 속 혼전… 유력 컨소시엄 잇단 철수

〈제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및 현황〉

은행(가칭)	컨소시엄 참여사·기관	특징	참여여부
더존뱅크	더존비즈온	중소기업현대해상·소상공인 특화은행	불참
소소뱅크	지역소상공인연합회현대해상·11개정보통신기술업체	소상공인·소기업 특화은행	참여
유뱅크	렌딧·현대해상·루닛·트래블월렛 등	시니어·소상공인·중소기업·외국인 포용 금융	하반기 유예
포도뱅크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한국소기업연합회 등	재외동포 특화은행	참여
한국소호은행	한국신용데이터·우리은행·우리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은행	참여
AMZ뱅크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한국금융투자협동조합 등	농업인·MZ세대를 위한 챌린저 은행	참여

탄핵정국 혼란·경기침체 지속  
더존뱅크 예비인가 신청 철회  
유뱅크도 신청시점 재검토  
소소·AMZ뱅크 등 경쟁 전망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앞두고 유력 컨소시엄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탄핵 정국’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시기를 지켜보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4번째 인터넷은행으로 어느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을 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4인터넷은행 후보로 유력했던 더존뱅크가 최근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더존뱅크를 추진했던 더존비즈온은 경영관리 핵심 업무 플랫폼인 ERP 시스템 데이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인터넷은행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신청을 검토해 왔지만, 단기적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신규사업 추진보다 안정적인 방향을 택했다”며 “비즈니스 솔루션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금융 플랫폼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존비즈온의 지난해 연간 연결 기준 매출은 4023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원(ONE) 인공지능(AI)은 기업에 맞는 AI를 도입, 보안을 관리하는 서비스로 출시 6개월 만에 2000개 기업과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익을 올리고 있다.

네 번째 인터넷은행으로 진입할 경우 수 천 억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다. 통상 인터넷은행의 경우 출범 뒤 최대 4년

간 적자를 기록하는 만큼, 기업의 재무 등 정보를 수집하는 ERP 플랫폼에 AI 서비스를 더해 혁신금융플랫폼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유뱅크도 예비인가 신청 시점을 재검토한다.

유뱅크를 추진하는 렌딧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은 대출이 필요한 개인(또는 집단)과 투자가 필요한 개인(또는 집단)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사업평가모델을 개발해 왔다. 함께 컨소시엄에 뛰어들던 현대해상과 트래블월렛 등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더해 중소기업과 고령층,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유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예비심사 신청을 위해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했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으로 결정했다”며 “신청 시점은 금융당국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네 번째 인터넷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독과점 체제를 비판하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제시된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이 불안해지고, 정치적 변화에 따라 정책 변화폭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예비 심사는 한국소호은행과 포

도뱅크, AMZ뱅크, 소소뱅크가 경쟁할 전망이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를 중심으로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이 참여한다. 한국신용데이터와 은행 카드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해외 동포를 위한 포도뱅크는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와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참여한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워크스톤파트너스 등이 참여해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추진한다. 현재 50여 개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AMZ뱅크는 한국생명농업경영체연합회와 한국금융투자협동조합이 참여한다. 농업인과 MZ세대를 위한 챌린저 인터넷은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25~26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접수 이후 2개월 이내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예비인가 취득 사업자가 있을 경우 올해 중 본 인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잇단 건설현장 화재사고, 공정 전반 위험관리평가 필요”

보험업계 “건설공사보험제도 한계  
공정별 위험관리보고 의무화해야”

최근 건설 현장에서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해 ‘사고 후 보상’을 넘어서 ‘사고 전 관리’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 현장 화재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국립한글박물관 증축 현장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불이 나 5억원 이상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건축 현장의 특성상 공사 완료 단계에서 일어나는 화재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용접·용단·연마 같은 불꽃 작업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탓이다. 지난 2020년 이전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화재도 공정률이 80% 이상

인 상황에서 발생해 38명이 사망했다.

현행 감리제도와 근로감독관 제도가 있음에도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위험관리에 대한 한계가 꼽힌다. 감리는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지만 안전관리보다는 공사의 품질 및 효율성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근로감독관 역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현장 감독이 충분치 않다.

문제는 건설사고를 보장하는 건설공사보험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현장 화재 위험과 건설공사보험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적 미비로 인해 보험사의 건설 현장에 대한 위험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건설 현장 위험 평가는 보험계약 전에 언더라이팅 목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진단 보고서’ 작성에 한정된다.

보험사는 공정 단계별로 건설 현장의 위험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보험사는 건설 현장 위험평가를 위해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공사 초기에만 작성되는 탓에 화재 예방이나 공정 단계 전반에 걸친 위험평가를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건설공사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다. 위험진단 보고서의 위험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도 조사보고서를

공정 단계별로 작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위험진단 보고서는 자연재해 가능성, 지리적 위치에 따른 공사 중 위험도, 주변 인접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 등 공사 시작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들만 평가하고 있다”며 “평가 범위를 건설사의 안전사고 이력이나 안전관리 역량 등으로 확대하고 위험진단 보고서를 보험료 차등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률(25%, 50%, 75% 등)에 따라 위험도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현행 관급공사에서만 제출하는 위험도 조사보고서를 전 공사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현대·롯데건설컨소시엄  
부산 연산 5구역  
재건축사업 수주

현대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3일 열린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 20만8936.60㎡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하 4층~지상 45층, 14개동, 총 2803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1조4447억원이며 지분율은 현대건설이 53%, 롯데건설이 47%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부산 연산5구역 재건축 단지명칭으로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센텀스카이’를 제안했다. 첨단 미래도시의 상징인 센텀(Centum)의 가치를 뛰어넘는 최고 높이의 자연 조망 단지를 완성해 부산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단지는 타워형 위주의 배치 계획을 통해 수영강, 장산, 배산 등의 조망을 개선했다. 모든 조합원이 바다, 강, 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3면 개방 특화, 포켓 테라스,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조망 특화 평면을 적용해 모든 세대에 최적의 조망 프리미엄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 45층 최고층에 조성하는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는 탁 트인 아름다운 풍경과 단지의 상징적인 경관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스카이라인 지어는 스카이라운지와 루프탑라운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올해도 핵심 사업지에서 조합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수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 ‘글로벌IT소프트웨어 주식형’ 펀드, 나스닥100 수익률 2배

미래에셋생명 기술혁신수혜 극대화  
성장성 있는 중소형 SW 기업 투자

미래에셋생명 ‘글로벌IT소프트웨어 주식형’ 펀드가 지난 4일 기준 연평균 수익률 21.8%, 누적수익률 125%를 기록했다.

해당 펀드는 국내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글로벌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도 기업들에 투자한다. AI 및 클라우드 등에 분산투자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올 3월 3일 기준 나스닥100 지수가 1년간 12.1% 상승한데 비해 미래에셋생명의 ‘글로벌IT소프트웨어 주식형’ 펀

드는 동일 기간 21.8% 상승했다. 비교 지수 대비 약 2배 성과를 기록했다.

이 펀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아이셰어즈 익스팬디드 테크-소프트웨어 섹터(iShares Expanded Tech-Software Sector) ETF(69.03%) ▲글로벌 엑스 클라우드 컴퓨팅(Global X Cloud Computing) ETF(13.91%) ▲블랙록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크놀로지 펀드(BlackRock Next Generation Technology Fund)(13.72%)에 투자해 IT 혁신 기업들에 대한 집중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빅테크 중심의 대형 소프트웨어 주식들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 성

장성 있는 중소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우 등 역동적 성장과 확장이 예상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선두 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다.

위탁한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본부장은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본격적인 수익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미래에셋생명에서만 제공하는 글로벌IT소프트웨어 주식형 펀드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기술 혁신의 수혜를 극대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미래에셋생명 사옥.

/미래에셋생명